

兒童觀을 통해 본 兒童服 변화에 관한 연구

-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 -

강순제* · 이선민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석사졸업

본 연구는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의 아동복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시대에 따른 사회적 배경과 함께 아동의 사회적 위치를 그 당시 교육과 양육을 통하여 살펴보고, 각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아동관을 당시의 아동복과 관련지어 특성과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자가 아동관을 아동복의 변화와 관련짓게 된 이유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아동의 사회적 위치와 아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변하였고, 이는 곧 아동복의 변천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아동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아동관의 변화를 재조명 해보고, 아동복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문헌이나 잡지, 신문, 화보 등을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시대별 아동교육 및 양육의 변화를 통해 본 그 당시의 아동관을 살펴보고, 아동관의 특성에 따라 시기를 분류하여 아동복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을 근거로 각 시대에 따른 아동관의 변화와 관련지어 아동복의 특징을 제시하였으며, 그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아동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동 중에서도 학령전기에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조선후기부터 현재까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관이란, 사전에서 '아동 본질에 대한 견해나 사고방식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로 정의되어 있다.

아동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특성에 따라 시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후기부터 개화기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성인이 되는 과정으로 인식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서양문물의 도입으로 새로운 교

육과 양육법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소개되었으며, 아동해방운동과 함께 아동을 어른의 대를 잇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근대적 아동관이 등장하였다. 광복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서 잠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가 등한시 되기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아동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변화하였다.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아동을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로 인식하여 이전과는 다른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양육 및 교육하고 있다.

아동복 역시 이와 같이 시기를 넷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선후기부터 개화기는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의복의 종류와 형태가 성인과의 다른 점이 거의 없는 성인축소형의 의복을 입었다. 일제시대에는 성인복의 변화와 더불어 개량된 한복을 입었고, 활동하기 편한 양복을 선호하여 입기 시작하였다. 광복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아동복이 처음으로 기성복으로 생산되면서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아동복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동복의 패션화, 다양화, 고급화 경향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아동관의 변화와 함께 아동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의 성인축소형 아동복에서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활동중심의 아동복, 1980년대 이후에는 아동중심의 아동복으로 이행하면서 그 변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단계별로서의 특징과 內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 시대의 아동관과 관련지어 아동복의 특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아동복의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앞으로의 아동복의 변천 방향을 유추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